

청소년들까지 '남녀차별' 의식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바람직한 여성상을 '능력있는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게 아니!”
“사내자식이 그만한 일 가지고 질질 찌니?”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 부모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청소년들은 이런 남녀차별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권신장’ ‘남녀평등’ 등에 대해 여학생의 76.6%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한 반면 남학생은 37.2%만이 ‘필요하다’고 답해 남녀학생 사이에 여성문제에 대한 생각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청소년무크 <푸른나무> 4호에서는 ‘남녀차별’ 문제를 특집으로 마련,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 9백명(남 4백50명, 여 4백5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문제에 대한 남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다.

조사결과 ‘남성의 능력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의 37.2%가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했고, ‘여성이 더 뛰어나다’ ‘똑같다’가 각각 25.6%, 19.9%였다. 반면에 남학생들은 48.7%가 ‘남성이 더 뛰어나다’고 답해 남학생들의 우월의식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해 여학생의 70.1%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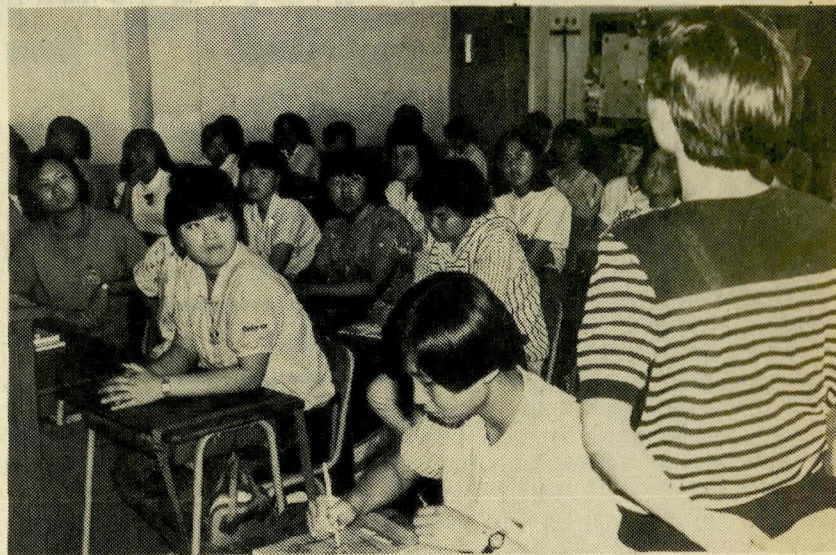
‘능력있는 여성’을 꼽았지만 남학생은 55%가 ‘순결하고 겸허한 여성’을 꼽고, 다음으로 ‘가정에 충실한 여성’(25%), ‘능력있는 여성’(12.5%) 등의 차례로 꼽아 남학생의 여성상이 전통적인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여권신장, 남녀평등’에 대해선 여학생의 76.6%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으나 남학생은 37.2%에 지나지 않았다. 남학생 가운데 ‘남녀평등은 전혀 쓸데없는 말이다’라고 쓴 응답자도 있었다.

그러나 ‘당신의 남편(아내)될 사람이 당신보다 학력이 높다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남학생의 62.5%, 여학생의 70%가 ‘상관없다’고 답했으며,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졌을 때 가사일은 누가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다’고 답하는 등 남녀학생 공통으로 변화된 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사를 맡았던 ‘스’여고 문예반 학생들은 “남학생들의 의식이 전보다 많이 진보되었지만 보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많은 문제를 자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습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바람직한 여성상 남자 ‘순결’ 여자는 ‘능력’ 꼽아 ‘여권신장 필요하다’ 남학생 불과 37%만 지지

말아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학생 50.1%, 여학생의 58.7%가 ‘남성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남학생 59.5%, 여학생 57.2%가 ‘어느

분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변화를 위해 청소년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른나무>에는 설문조사결과 외에 △열손가락 △텔리비전에서 가장 재미있는 광고 △학교교육

과 성차별 △희망사항과 나의 결혼 등의 글을 통해 청소년들이 집, 사회, 학교에서 느끼는 성차별문제를 솔직하게 쓰고 있다.

“밥은 똑같이 먹고 설거지는 나만 해야 하나?”

“여자만의 경우 급훈을 ‘참되게, 착하게, 꽃답게’ ‘예절바른 여학생’ 등으로 정하고, 남자만의 경우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창조의 힘을 기르자’ 등으로 다르게 정한다”

“어떤 여학교에서는 일부러 ‘치마입는 날’까지 정해 무리하게 치마를 입고 다니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자유로움을 묶어버리려 한다”

<김미경 기자>